

■ 최고치 행진 '코스피' 상승탄력 어디까지

“고점 뚫렸다”... 연말지수 2,200 기대

미국발 훈풍·실적장에 투자심리 급호전... 원자재값 상승이 변수

코스피지수 연말 사상 최고치 행진을 벌이면서 증권가에 낙관론이 팽배하다. 전문가들은 국내 증권시장이 최근 미국의 서브프라임 악재를 벗어나 상승세로 복귀했다며 고점이 뚫린 이상 연말까지 추가 상승세를 이어가 코스피지수 2,200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낙관론 팽배=이들은 낙관론의 근거로 무엇보다 호전된 글로벌 증시 여건을 꼽았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가 고조됐을 때만 해도 증시 전망에 대한 논쟁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미국의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면서 서브프라임 위력이 완화된 데다 ▲아직까지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신용시장으로의 자금유입이 지속되고 있고 ▲미국의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견조

한 것으로 발표돼 미국 경기 둔화가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투자심리가 급호전했다는 분석이다. 김영일 한화투자증권 본부장은 “서브프라임 사태로 인한 혼란을 겪은 이후 투자자들이 자신감을 얻었다”며 “연말까지 10% 정도는 추가 상승이 가능해 지수 2,200 정도는 바라볼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외에도 국내외 기업들의 3·4분기

실적 발표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과 내수경기 회복 분위기도 주식시장 전망을 밝게 해주는 요인으로 꼽혔다. 정경수 우리CS자산운용 전무는 “기업들의 이익이 작년 동기 대비 3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현시점에서는 ‘기업 실적 호전’이 뒷받침돼 추가 상승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다만 미국이 추가로 금리인하를 하지 않으면 실질지표가 약

화될 수 있다는 점과 미국 경제의 침체 우려가 여전히 시장의 부담요인으로 상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값 상승에 따른 물가 상승 우려도 주목할 부정적인 변수라고 지적했다. <주도주엔 이견=향후 장을 이끌어갈 주도주에 대해서는 증권·철강·조선·기계 등 기존 주도주와 내수경기 회복 및 저평가 매력에 부각되고 있는 유통 등 내수주라는 의견이 엇갈렸다.

김성주 대우증권 투자전략파트장은 “기관투자자가 수익률 관리에 나서면서 낙오하는 업종은 바뀔 수 밖에 없다”며 기존 주도주의 강세를 예상했다. 삼재업 메리츠증권 투자전략팀장은 “펀더멘탈 개선과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크기 때문에 추가적인 지수상승이 이어질 것”이라며 조선·철강 등 기존 주도주에 힘을 실었다. 반면 김성주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건조한 국내 경기를 감안하면 매기가 확산되고 있는 금융·내수 업종으로 관심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필수기자 bungey@kwangju.co.kr

증권사 목표주가 잇단 상향 조정

신세계 75만원대로

증권시장이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실적에 뒷받침되는 종목들 중심으로 증권사들의 목표주가 상향 조정이 붓물물 이루고 있다. 1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대신증권, 한화증권, 신영증권 등은 일제히 3·4분기 어닝전프라이즈를 기록한 LG필립스LCD의 목표가를 올려잡았다. 이들 증권사는 “LPL이 2006년 2·4분기부터 올해 1·4분기까지 연속 적자를 기록했으나 2·4분기 흑자 전환에 이어 3·4분기 대규모 이익을 냈으며, 2008년에도 실적 호전이 지속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목표가 상향 배경을 설명했다. 역시 3·4분기 실적에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은 신세계에 대해서도 CJ투자증권, 푸르덴셜증권, 대우증권 등이 이날 나란히 목표주가를 75만원 전후로 상향조정했다. 골드만삭스, JP모건 등 외국계 증권사들도 신세계 목표가 상향 대열에 동참했다. 증권사들은 또 최근 시가총액 11조원과 코스닥시장 시가총액 비중 11%를 넘어섰던 NHN도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삼성증권이 5일 NHN에 대해 30만3천원으로 처음 30만원이 넘는 목표가를 제시한 뒤 미래에셋증권(26만원~32만원), 씨티그룹(21만7천원~32만2천원) 등도 뒤를 따랐다. /연합뉴스

국민연금은 정부 쌈짓돈

재경부, 45조 빌려 쓰고 이자 한푼 지급 안해

정부가 국민이 낸 보험료로 적립한 국민연금을 끌어쓴 뒤 이자도 지급하지 않겠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제회 의원(한나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제도 도입 첫해인 1988년부터 2000년까지 ‘공공자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강제로 재정경제부에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45조6천371억 원을 예탁했다. 공공자금관리기금 확충이란 명분으로 엄청난 규모의 국민연금기금을 정부에 빌려준 셈이다. 국민연금금이 이처럼 정부에 맡긴 원금은 올 6월 현재 모두 회수한 상태다. 그러나 재경부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예탁 및 재예탁조건 결정기준’ 개정으로 국민연금기금 등 각 기금을 민간시장에서 운용할 때의 수익(주식 제외)과 공공

관리기금에 예탁할 때의 수익차익을 ‘이자 보전’하기로 해놓고 아직까지도 ‘보전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전 의원은 지적했다. 전 의원은 “정부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1999년 4월부터 2005년 2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보전이자 지급을 요구했는데도 지금까지 민간부문운용수익률과 정부예탁수익률의 차이에 해당하는 무려 2조5천776억원을 국민연금에 반환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공무원연금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대폭 늘리면서 그간 국민연금공단에 관리운영비 명목으로 지원하던 국고지원마저 큰 폭으로 삭감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보해 ‘복분자원 프리미엄의 맛’ 분자원 프리미엄을 시용하고 있다. '2007 서울국제음식산업박람회'가 10~13일 서울 양재동 에티센타에서 열리고 있는 가운데 10일 보해양조 부스를 찾은 한 관람객이 농축 복분자 음료인 '복분자원 프리미엄'을 시용하고 있다. (보해양조 제공)

종잇장 처럼 얇은 ‘꿈의 디스플레이’ AM OLED

〈능동형 유기발광다이오드〉

삼성SDI 세계 첫 양산 돌입

총 투자비 4,775억 투입

완벽한 자연색 표현, 종잇장처럼 얇은 두께 등으로 ‘꿈의 디스플레이’로 불리는 AM OLED(능동형 유기발광다이오드)가 삼성SDI에서 세계 최초로 양산된다. 삼성SDI는 9월부터 천안사업장 A1 라인에서 AM OLED의 본격적인 양산을 시작했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세계 유수의 전자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AM OLED의 양산을 시도해 왔지만 기술 문제와 막대한 초기 투자비용 등 여러 장애물에 가로막혀 번번이 포기했다. 삼성SDI는 2005년 11월 총 투자비 4천775억원의 세계 최초 4세대 LT-PS(Low-Temperature Poly-Si) 전면발광(Top Emission) 방식의 AM OLED 양산투자를 선언하고 연구 개

발을 진행해 왔다. 삼성SDI는 2인치 AM OLED 기준으로 월 150만 개의 생산 능력을 갖추었으며, 내년까지 월 300만 개로 생산능력을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삼성SDI는 올해 2인치급 휴대전화 등 모바일 디스플레이용 AM OLED 출시를 시작으로 2008년 3.0~7.0인치급 PMP 및 UMP용 AM OLED, 2009년부터는 노트북, TV용 10~30인치 초대형급 AM OLED로 생산 대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삼성SDI는 올해 일본 교세라 사에서 제작한 휴대전화 ‘미디어 스킨(MediaSkin)’과 MP3플레이어인 아이리버의 ‘클릭스(Clix)’에 시장 테스트용으로 AM OLED를 공급했다. 미디어 스킨은 동급 기종에 비해 2배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출시 3개월 만

▲AM OLED(능동형 유기발광다이오드) = 필립 없는 동영상 재생과 우수한 야외 시인성, 사각(死角) 없는 광시야각 등 다른 디스플레이를 압도하는 우수한 화질로 전자 업계에서는 ‘꿈의 디스플레이’로 불린다.

에 25만대가 팔렸으며, 클릭스는 3차에 걸친 인터넷 사전예약 판매가 순식간에 모두 마감되는 인기를 누렸다고 삼성SDI는 설명했다. 삼성SDI는 글로벌 톱 3 휴대전화 제조 업체를 포함한 전자업체 제조사들과 긴밀한 관계를 통해 AM OLED 사업의 글로벌 리더십을 강력히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연합뉴스

공무원 인건비 5년간 8조원 ↑

공무원 총인건비가 올해를 포함해 향후 5년간 모두 8조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무원들의 임금 상승률은 매년 3%를 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공무원 수가 계속 증가하면서 총인건비 부담이 짊어지지 않을 전망이다. 10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중기운용계획상 공무원 총인건비는 ▲2007년 21조8천억원 ▲2008년 23조4천억원 ▲2009년 25조원 ▲2010년 26조7천억원 ▲2011년 28조6천억원 등이다. 2011년 총인건비는 2006년의 20조4천억원보다 40.2%인 8조2천억원이 늘어나는 규모다. 매년 총인건비 증가율은 7% 안팎이며 이는 공무원 수 증가, 호봉 승급 등이 모두 반영된 것이다. 매년 공무원 임금상승률은 2.5% 안팎이다. 기획재정부는 “공무원들의 처우개선에 해당되는 실질 임금상승률은 매년 3%를 넘지 못한다”면서 “공무원 임금이 다른 분야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면 이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올리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공무원 1인당 임금상승률은 2005년 이후 3% 이내에서 억제됐다. 연도별 상승률은 1999년 -4.5%, 2000년 9.7%, 2001년 7.9%, 2002년 7.8%, 2003년 6.5%, 2004년 3.9%, 2005년 1.3%, 2006년 2.0%, 2007년 2.5% 등이었다. 이에 따라 민간 임금수준(100인 이상 고용 기업) 대비 공무원 보수의 비율은 2000년 84.4%, 2001년 93.1%, 2002년 94.9%, 2003년 95.5% 등에 이어 2004년 95.9%로 정점을 찍은 뒤 2005년 93.1%, 2006년 91.8%, 2007년 91% 등으로 내려오고 있다. /연합뉴스

영·유아 보육비 월 평균 65만원

만 5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를 둔 맞벌이 직장인들은 보육비로 평균 65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로크리아가 만 5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를 둔 맞벌이 직장인 227명을 대상으로 자녀 보육비 현황을 조사한 결과, 맞벌이 가정은 자녀 1인당 한 달 평균 65만원을 보육비로 사용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50만원 이상 60만원 미만’ 지출한다는 맞벌이 직장인은 35.7%로 가장 많았으며, ‘60만원 이상 70만원 미만’(13.7%), ‘120만원 이상’(11.4%), ‘100만원 이상 120만원 미만’(11.0%), ‘70만원 이상 80만원 미만’(9.7%) 등이 뒤를 이었다. 맞벌이 직장인들은 대개 양가 부모(60.4%)에게 아이를 맡기지만 친인척(13.6%)에게 부탁하거나 베이비시터 등의 개인탁아(13.6%), 보육시설(5.3%) 등을 활용하는 이도 있었다. 특히 보육비는 아이를 맡기는 곳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개인탁아가 119만원으로 가장 비용이 많이 들었으며 이어 친인척(61만원), 양가 부모(56만원), 보육시설(34만원) 등의 순이었다. /연합뉴스

어디서든 인터넷으로 부동산 등기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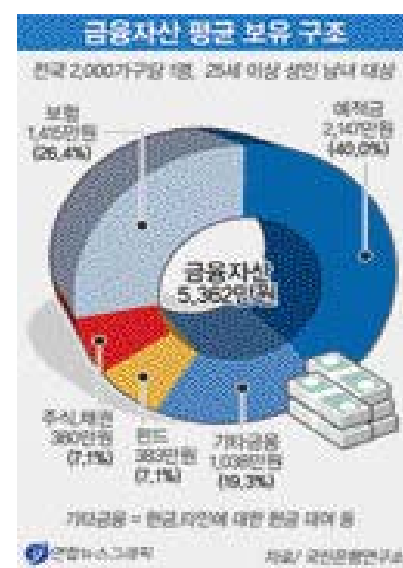
등기소를 직접 가지 않고도 집이나 사무실에서 토지·건물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부동산 등기 전자신청 서비스’가 전국에서 제공된다. 대법원은 현재 부동산 등기 전자신청이 서울과 수도권의 60개 등기소·법원 등기과에서만 가능하지만 실시 지역을 97개 추가해 전국 157개 등기소·과에서 확대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서비스 확대 지역은 제주와 강원, 광주·전남, 대구·경북, 부산, 대전·충남 지역의 97개 등기소·과

이며, 소유권 보존·이전, 건물별실 등 9개 등기 유형의 전자신청이 추가로 가능해진다.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법 등기과를 시작으로 전자신청을 도입, 올 3월까지 3차례 시행범위를 넓혔으며 종전까지는 서울과 수도권 60개 등기소·과에서 35개 유형의 전자신청이 가능했다. 전자신청 확대로 제주도 울릉도에 있는 부동산도 집에서 등기 신청을 하게 되는 등 특히 원격지에 있는 부동산의 등기 신청이 한결 편리해졌다. /연합뉴스

월 1,000만원 금융소득자 7700명

이자와 배당 등 금융소득만으로 한달에 1천만원 이상의 수입을 올리는 금융자산가가 지난해 7천700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소득이 연간 4천만원을 넘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로 신고한 인원은 2만4천여명으로 집계됐다. 10일 재정경제부가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2005년 귀속분) 때 연간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넘는 것으로 신고한 이는 모두 2만3천887명으로 이 중 423명에 비해 인원은 3%, 금액으로는 9.2% 늘어날 수 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이자나 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간 4천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근로소득·사업소득·임대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14~35%의 누진세율로 종합과세하는 제도다. 지난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자를 구간별로 보면 금융소득이 연간 5억원을 넘는다고 신고한 자산가는 1천805명으로 이들의 금융소득은 무려 2조9천864억원에 달해 1인당 평균 16억원이 넘었고, 1억2천만~5억원 구간의 자산가도 5천896명(1조3천387억원)으로 집계됐다. 월 평균 1천만원 이상의 금융소득을 올리는 자산가만 무려 7천701명에 달하



는 셈으로 이는 2002년 3천707명에 비해 4년간 두배 이상 늘어날 수 있다. /연합뉴스

‘고은 하이플러스’ 282세대 분양

광주 남구 진월동에 6개동 규모

고은건설은 광주 남구 진월동에 ‘고은하이플러스’아파트 282세대를 분양한다. ‘고은하이플러스’는 제석산 자락에 6개동 규모로 들어선다. 동간 거리와 조망권을 극대화시킨 설계로 쾌적성을 높였으며, 단지 내 테마파크와 전 세대 3.5 Bay 평면설계로 채광공간을 대폭 늘렸다. 제2순환도로 효덕IC, 용산IC 등과의 연결성이 뛰어난 교통 요충지로, 단지 인근에 마트·분점점과 씨티 등 쇼핑시설이 있다. 효덕·진월·계서초, 동성중·고, 문성중·고, 대성여중·고, 송원중·고, 인성고, 광주 대학 등 교육시설도 밀집돼 있다. 문의 062-529-6700.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